

# 우리나라의 防衛産業

金

尙

憲(國防部防産2局長・陸軍准將)

## 內 容

### 머 리 말

1. 防衛産業의 育成背景
2. 우리나라 防衛産業의 基本政策 및 推進方向
3. 우리나라 防衛産業의 現在와 展望  
가. 防衛産業 育成實態  
나. 우리나라 防衛産業의 現水準  
다. 우리나라 防衛産業의 展望

### 맺 음 말

## 머 리 말

저와같이 政府의 一員으로서 수년간 防衛産業에 종사한 사람도 防衛産業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오면 그 뜻이 지극히 明瞭할 것 같으면서도 學術的으로나 現實的으로 劃一性있게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實情입니다. 왜냐하면 最近 防衛産業과 不可分の 관계에 있는 戰爭樣相이 날로 변해가고 있고, 防衛産業이 1次的으로는 軍의 需要에 부응하는 것으로 理解되고 있지만 오늘날 軍과 民의 공통 需要部分이 확대되어 가는 傾向이 있어, 그 區分마저도 相對的일 뿐만 아니라 長期的인 안목에서 볼 때 현재의 民需産業도 可變的, 暫定的인 防衛産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防衛産業은 純粹한 의미에서 보다는 軍·民의 總力概念에 의한 經濟活動이 防衛産業이라는 개념으로 再定立되어

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防衛産業은 國家防衛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兵器, 裝備 및 物資等 이른바 防衛製品을 제조 또는 수리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防衛産業에 종사하고 있는 實務者의 입장에서 본 防衛産業 育成 背景과 基本政策, 그리고 防衛産業의 現在와 展望을 概略的으로 綜合評價해 보고자 합니다.

### 1. 防衛産業의 育成背景

우리나라에서 防衛産業 育成의 必要性이 제기된 現實的인 背景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 바, 그 하나는 美國의 對韓政策의 變化이고 다른 하나는 北傀의 赤化野慾을 充足하기 위한 持續的인 軍備擴張으로 大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美國의 對韓政策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對美依存 一변도의 國防力으로부터 自主的인 國防力 조성으로 方向轉換을 促求시킨 主要한 原因으로 作用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美國의 對韓支援 政策은 1950년대초 6·25 動亂을 계기로 한 積極적인 軍事支援 體制로부터 시작하여 1950년대後半 美國의 國際收支가 악화되면서부터 차차 감소되어 오다가 60년대에 美國의 對韓軍援 移管計劃은 實質的인 軍援의 減少를 加速化시켜 70년대에 와서는 소위 닉슨 독트린으로 알려진 새로운 政策은 亞細亞 地域에서 在來式 戰爭이 발발하는 경우에 그 防衛의 1차적 責任은 當事國 자신이 져야 하며, 美國은 同盟國家와 맺은 相互 防衛條約의 테두리속에서 원조의 公約을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後退되었으며, 그 결과는 美軍 戰鬥部隊의 段階的

撤收와 직접 軍事援助의 減縮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美國의 對韓政策의 일련의 변화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國力の 배양과 組織化는 물론 종래의 國防 調達源이었던 一般輸入이나 有·無償支援을 自體 調達源으로 조속히 전환시켜야 한다는 強迫觀念과도 같은 敎訓을 우리에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北傀는 8·15 解放 이후부터 軍備擴張을 계속해 왔으며, 1966년부터는 그들의 人民經濟 計劃을 대폭 修正하여 이른바 4대군사노선을 채택한 이후 北韓 全域의 要塞化와 軍裝備의 現代化에 광분함으로써 70년대초에 이미 戰爭準備를 完了하였습니다.

이와같은 北傀의 軍備擴張 事業은 50년대를 個人火器 生産段階, 60년대를 中火器 生産段階, 그리고 70년대는 대형장비 生産段階로 접어들어 최근 報道에 의하면 소聯製 T-54와 T-55탱크를 바탕으로 탱크의 自主生産을 위한 原型製作 단계에 도달되었거나 量産體制를 갖추었다고 하며, 그밖에도 일부 潛水艦과 驅逐艦을 1975년에 自體 生産하고, 76년에는 미그 戰鬪機를 實驗用으로 生産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南北韓間에 커다란 戰力の 隔差를 보이던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의 防衛産業이 광범위하게 거론되기는 68년 1.21사태 직후이며, 그후 몇년간 그 필요성이 성숙되어 오다가 1972년 朴大統領 閣下께서 이러한 國內·外 정세를 直視하시고 “나는 요즈음 여러가지 國內外 情勢를 綜合 判斷한 결과 우리나라의 國家安保에는 벌써 危險 信號가 와 있다고 본다”고 밝히시고 우리의 生存權을 지키고 繁榮의 軌道를 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國力을 動員하여 組織化하고 國家安保를 위한 總力安保 體制를 最優先的으로 다져가야 된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防衛産業은 그 必要性이 거론된지 10년이 經過하였고, 이를 本格的으로 育成하기 시작한지는 7년째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와같은 背景에는 防衛産業 育成에 對한 朴大統領 閣下의 強한 執念과 온國民의 애뜻한 所望이 집약된 것으로서 自立國防力 배양에 巨步를 내디딘 里程碑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2. 우리나라 防衛産業의 基本政策 및 推進 방향

비록 우리나라의 防衛産業이 美國의 對韓政策의 변화나 北傀의 지속적인 軍備擴張에 따르는 戰爭威脅의 증대에 對處하기 위하여 뒤늦게 출발하였으나 防衛産業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조속한 時日內 自主國防力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防衛産業 育成支援에 관한 基本政策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自主國防의 初期 실현을 위한 兵器, 裝備 등의 國産化 사업의 積極推進과,

나. 防衛産業의 效率的인 추진을 위해 經濟開發 5年計劃 및 重化學工業과 並行 育成시키고,

다. 現在의 可用資源과 國內工業의 潛在力을 활용하기 위하여 加급적 民間主導型으로 추진되 現有兵器 및 裝備維持에 그 優先順位를 부여하고,

라. 民間企業 또는 研究機關의 資本不足을 해소하고 관계업체의 주도적인 參與意識을 鼓吹하기 위하여 각종 資金의 融資, 稅制上의 特惠, 技術者 및 技能士에 대한 兵役特例 조치등을 지원하며,

마. 平時 軍需業體를 有事時 신속하게 戰時體制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戰時動員 體制를 研究發展 시키며, 끝으로 防衛産業體의 適正利潤 보장과 기존시설의 遊休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國內의 需要充足 노력에 대하여는 기타 民수품을 최대한 생산한다는 것 등입니다. 이와같은 基本 育成政策에 입각한 具體的 推進 目標은 81년까지는 北傀보다 優位의 防衛産業體를 완성한다는 데 두고 防衛産業에 착수한 72년부터 76년까지는 基本兵器 및 彈藥의 國産化를 위한 研究開發과 量産體制의 확립을 위하여 基幹産業의 基盤을 구축하고, 77년부터 81년까지는 基本兵器 및 彈藥과 其他 裝備를 量産하여 戰力化하는 동시에 高度의 戰略武器 生産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고, 82년以後 부터는 우리나라 사립의 身體的 特徵과 地政學的 立地條件에 적합한

獨立的인 武器體系를 확립하여 우리의 戰略戰術에 最適한 自主的인 兵器를 개발 戰力化함으로써 名實共히 自主國防을 완성하는 단계로 設定하여 여러분도 周知하시는 바와같이 現在 計劃보다 앞당겨 순조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3. 우리나라 防衛産業의 現在와 展望

#### 가. 防衛産業育成實態

우리나라의 防衛産業은 基本政策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可用資源의 範圍內에서 既存施設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原則하에 各급적 關聯專門業體 主 民間企業 主導型으로 수행토록 하며, 기타 民間部門에 무리한 影響이 가지 않도록 漸進的· 段階的으로 육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防衛産業의 脆弱性으로 지적되는 尙大한 자금의 所要, 高度한 技術人力의 확보 및 需要· 供給面에서 獨占的인 市場形態를 취하는 等 防衛産業의 고유의 성격에서 뿐만 아니라 企業의 適正 利潤을 保障해주고 高度의 精密을 요하는 兵器의 개발生産에 있어서의 信賴性을 확보하는 面에서도 지금까지 정부의 集中的인 지원을 필요로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民間企業이 自體開發 및 生産에 대한 기술의 蓄積없이 국한된 國內 需要만을 대상으로 하는 現時點에서는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育成施策과 防衛産業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防衛産業 基盤完成 단계인 1977년도 第4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期間부터 重化學工業에 의중점적 투자와 병행하여 防衛産業을 육성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育成政策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政府에서는 1973년 2월 軍需調達에 關한 特別措置法을 제정하여 防衛産業의 育成支援을 위한 제도적인 시책에 完璧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첫째 稅制面에서 所得稅 및 法人稅의 減免等 特別適用, 國內生産이 不可能한 軍需物資의 原資材에 對하여는 關稅 및 特別消費稅의 면제, 그리고 附加價値稅의 零稅率 적용등 各種 租稅 特別措置를 한 바 있으며, 둘째 金融支援面에 있어서도 國民投資基金을 財源으로 한 各種 融資

및 外貨貸付와 특히 1977년 軍需調達에 關한 特別措置法 改正時에는 防衛産業 育成基金을 설치 運用토록 하여 現在 關係部處와 基金規模 및 實施時期를 협의중에 있고, 세계 軍需業體 또는 研究機關에 對하여는 關係法令의 규정에 불구하고 必要한 專用機器 및 物品을 有償 또는 無償으로 대부하거나 讓與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長期契約 制度를 도입, 軍需業體에 대하여는 着手金 및 中渡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國內에서의 自體生産은 물론 外國에서 技術等을 도입 生産하는 경우에도 당해년도 소요 경비의 거의 전액을 선급받아 事業을 추진함으로써 資金의 零細性으로 인한 事業中斷 등이 없도록 하였고, 다섯째 軍需物資 原價計算 基準規程을 제정하여 研究 開發費등 原價費目을 現實化함으로써 軍需業體의 適正利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그밖에 優秀한 技術人力 확보를 위하여 技術者 및 技能士에 대한 병역특례 조치와 장려금등을 지급하는등 그 지원 체계를 補強한 바 있습니다.

#### 나. 우리나라 防衛産業의 現水準

이러한 정부의 各種 育成支援 施策에 호응하여 우리나라의 企業가들은 防衛産業體 건설에 솔선하고 나섰으며, 대기업가는 그 나름대로,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은 그들 분수대로, 두메산골과 낙도의 어린이들까지도 고사리같은 손으로 그들의 저금통을 뜯어 防衛誠金을 보내왔으며, 이러한 誠金이 담지할 때마다 저희들은 國民總和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가슴속의 뜨거움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거국적으로 育成을 期해왔던 우리나라의 防衛産業이 現在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防衛産業에 參與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虛心坦懷하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記述한 바와 같이 北傀는 1次元을 높이는 兵器의 生産에 10여년을 消費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防衛産業은 그 期間이 日淺한데도 小火器를 위시해서 各種 迫擊砲 및 曲射砲와 對空火砲, 一般 及 戰鬪車輛, 小·中·大口徑彈藥, 各種 手榴彈 및 地雷, 各種 有無線 通信裝備, 高速艇 及 輕헬리콥터등 在來式 基本兵器의 量産

體制을 완비하여 戰力化 하였으며, 그밖에도 大型 戰艦 및 航空機의 開發에까지 着手하였읍니다. 昨年과 今年의 國軍의 行事に 動員된 대부분의 裝備가 우리 손으로 開發 生産된 裝備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읍니다. 우리가 악몽같이 느끼는 6·25사변당시 단 1臺의 戰車는 물론 戰車 破壞武器마저 없어 우리의 軍將兵들이 육탄으로 붉은 탱크에 부딪쳐 散華해 갔으나, 이제는 北傀보다 그 性能이 우수한 美 M60A 戰車와 性能이 같은 高性能의 戰車를 우리 손으로 量産함으로써 自由陣營에서 戰車를 生産하는 9번째의 나라가 되었고, 對戰車 破壞武器인 TOW誘導彈과 로키트砲 등도 이미 戰線에 配置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在來式 裝備는 대부분 量産단계에 있으며, 現在는 既存裝備의 성능 改良事業을 포함하여 우리의 體質과 立地條件에 적합한 獨自의인 武器體系를 발전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今年年頭 記者會見時 大統領 閣下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外國에서 흔히 防衛産業의 綜合藝術이라고 評價되는 航空機의 生産도 일부 着手한 바 있고 레이더, 空對空, 地對地 미사일등의 生産도 개시되어 78년9월26일 實驗 發射에 成功한 NHK 地對地 誘導彈은 外國에서도 경이적으로 볼만큼 우리의 防衛産業은 完熟段階에 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核을 除外한 거의 모든 在來式 兵器가 國産化 體制를 갖춰 今年末에는 이러한 基本事業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당초의 계획을 앞당겨 高度의 精密兵器 生産을 위한 基盤構築에 역점을 두고 事業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다. 우리나라 防衛産業의 展望

앞으로 安定 基調위에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의 經濟成長 및 重化學工業과 병행하여 다져진 蓄積된 技術 與件은 수년내에 北傀를 능가하는 急成長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의 防衛産業은 北傀와 달리 급격한 國防費의 부담 없이도 現在 우리 經濟能力의 뒷받침으로 北傀처럼 經濟의 파탄없이 育成될 수 있다는 點입니다. 防衛稅의 稅收 推計로 判斷하여 볼 때 1977년에는 1976년에 비해 28.24%

가 增加했고 1978~1981년까지는 年平均 25.8%, 1982~1986년까지는 21.5%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으며(國科研 經濟分析室 發行: 防衛稅 稅收豫測 p.81 參照) 第4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에 立脚하여 보면 GNP에對한 防衛稅의 比重이 1976년의 2.28%에서 1986년에는 3.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政府 經濟開發 5個年計劃 1976, p.124 參照). 이와같은 水準은 同計劃 期間中 民需産業에 지장이 없이 防衛産業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는 財政의 뒷받침이 될 것으로 判斷됩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防衛産業을 重化學 工業의 중점적인 育成을 시도하는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과 병행 推進함으로써 그 效果도 倍加될 것이며, 兵器의 自主開發과 國産化의 범위도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그 理由는 本格的인 重化學 工業의 育成은 防衛産業의 底邊擴大에 크게 寄與하게 될 것이며, 防衛産業의 발전을 加速化시키는 轉機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防衛産業의 急速한 成長과 함께 國防 調達源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부 또는 그 일부를 對外輸入에 依存하거나 有·無價의 獲得 및 管理體系는 一部 輸入 또는 라이선스에 의한 生産方法을 제외하고는 自主開發 體系로 發展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른 調達計劃, 豫算, 發注 契約등 國防管理 需要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美國도 駐韓地上軍 撤收와 關聯하여 現在의 支援體制는 繼續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카터 行政府의 撤軍計劃과 關聯된 美 行政府의 目標와도 一致되며 韓·美 友好關係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防衛産業의 育成과 國防 研究 開發促進을 위한 政府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그 結果 81년까지 北傀보다 優位의 戰力을 確保한다는 우리의 防衛産業은 보다 앞당겨져 完成될 것입니다. 이러한 判斷은 最近 “韓國의 挑戰”이라는 冊을 쓴 스웨덴 經濟記者 헤드버그氏가 “19세기 歐美의 工業先進國이 近代 工業國家가 된 이래 20세기에 들어와서 成功한 例는 日本과 韓國밖에 없는 바, 日本은 世界 1次大戰 以後 1920년대에 그것을 이루었고, 2次

大戰 이후에는 1960년대부터 工業化를 시작한 韓國밖에 없으며, 앞으로 2000년대까지 東南亞 細亞와 南亞細亞에서 이런 나라가 나타날 공산은 매우 적다"라고 지적한 말을 보더라도 本人만의 獨斷的인 判斷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벌지 않은 將來에 우리나라는 自主的인 戰略構想과 卽應能力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用兵上의 條件을 充足시킬 수 있는 獨自的인 武器體系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防衛産業의 發展趨勢를 綜合 판단하여 볼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防衛産業은 다음과 같은 分野가 重點的으로 研究開發되고 추진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첫째, 지금까지 蓄積된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誘導武器 및 레이저武器, 高性能 電子 光學裝備, 水中兵器等 高度精密武器의 研究開發 및 量産體制를 구축함과 동시에 각종 航空機 및 戰鬪艦等의 生産 基盤구축에 우리의 모든 研究開發 能力을 集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高度精密 武器의 研究開發을 促進하고 制限된 技術人力을 效率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研究機關에만 의존하여 오던 研究開發 體系를 止揚하고 業體 主導型 研究開發 體制로<sup>V</sup> 轉換하여 推進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研究開發 業務를 專營하여 오던 研究機關은 長期的이고 特殊分野에 대한 研究와 軍需業體가 주도하여 研究開發할 兵器에 對한 技術支援, 試驗評價 및 最終 受諾檢査만을 專擔케 하고, 基本兵器의 性能 改良事業, 航空機 및 戰鬪艦等과 같이 外國으로부터 技術을 導入하여 生産할 수 있는 分野와 既存裝備의 維持部品 開發事業等은 軍需業體 自體의 研究陣을 활용하여 業體 主導型으로 研究開發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2次 軍需産業 振興擴大會議時 大統領 閣下께서 강조

하신 “一線將兵들이 生命을 걸고 寸刻을 다투어 싸우는 마당에서 兵器의 高度精密性和 品質이 무엇보다 重要하다”는 諭示를 銘心하여 官은 물론 軍需業體에서도 보다 信賴할 수 있는 防産製品이 우리 一線將兵에게 補給되도록 品質保證 분야를 계속 發展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維持部品 및 原·副資材의 國産化 문제와 業體 系列化 문제, 資材銀行의 設置等 制度的으로 검토 발전시켜야 할 事項이 많으나 紙面關係上 다음 機會가 있을 때 再論토록 하겠습니다.

## 맺 음 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可用資源의 제한과 北傀의 威脅이 尙存하는 여건속에서도 일찌기 防衛産業의 必要性을 察覺하시고 育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大統領 閣下의 탁월하신 先見之明과 防産分野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의 피땀어린 努力으로 지금까지 總力安保의 窮極目標인 自主國防力의 培養과 經濟的인 繁榮을 동시에 이룩하여 왔으며, 今年 國軍의 날 致辭에서 大統領 閣下께서 말씀하신 10년內 世界 10대 超強大國 隊列에 서기 위해 踴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發展이 계속되는 한 우리가 獨自的인 武器體系를 확립, 量産하게 되는 大望의 82년도에는 經濟的으로는 물론 軍事的으로도 北傀는 스스로 南侵을 拋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防衛産業 一線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防衛産業을 早期 達成하여 조속한 安保體制의 구축은 물론 防衛産業으로 다져진 蓄積된 技術이 우리나라의 모든 經濟發展에 裨益될 수 있도록 새로운 覺悟로 주어진 使命 完遂에 더욱 精進할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항간에는 휴전 하의 假想的 平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樂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不遠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悲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녕 憂려해야 할 것이 있

有  
備  
無  
患

다면 그것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침략에 대비할 줄 모르는 부질없는 空論과 時間의 낭비인 것이다.

-68 7 23 국방대학원 졸업식 朴大統領閣下 諭示에서